

# 우체국서 4대은행 대출 받는다... 불완전판매 해소 등 과제

## 내달부터 '은행대리업' 시행

금융위, 은행 점포 축소 공백 해소  
우체국서 대출 신청, 은행서 심사  
규격화 개인신용, 정책금융 판매  
정보 보안·관련법안 마련 등 필요

오는 7월부터 우체국에서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은행의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우체국은 판매만 담당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은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은행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은행대리업'을 시행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 즉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은행대리업 도입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금융서



## 은행대리업 업무예시

업무프로세스	주요업무	수행주체
상담·서류징구	여신심외 및 상담, 신용정보 조회 동의, 신청서 접수 등	은행대리업자
대출심사	신용평가, 담보평가, 금리·수수료 산정 등	은행
대출승인	대출금리 최종 판정, 여신 승인 등	은행
계약체결	승인 여부 및 계약 비용 안내, 대출 약정서 작성 등	은행대리업자



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4대 은행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688개로 전년(2779개)보다 91개 감소했다. 특히 지방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폐쇄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대리업이 시행되면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된 대출상품은 은행의 대출심사와 승인을 거쳐 우체국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위는 대출상품 구조

가 복잡한 기업 여신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비교적 규격화된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위주로 판매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체국과 은행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우체국 직원이 상품 설명과 신청 접수를 담당하고 실제 심사와 승인, 사후 관리 등은 은행이 맡는 구조인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판매를 담당할 우체국과 최종 책임을 지는 은행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산망 연동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전산망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중은행의 내부망을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정보와 금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만큼 정보

유출과 해킹, 시스템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대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제도화를 위한 입법 과제도 남아 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범 운영 이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대리업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 소비자보호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대리업은 금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소비자보호와 정보보안, 책임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 카드사 '주유비 할인' 실속 마케팅 강화

우리·KB 2곳만 '월드컵 프로모션'  
카드사, 민생부담 완화 기조 맞춰  
내달까지 자체적 주유비 할인 연장

카드업계 마케팅 공식이 변하고 있다. 월드컵 등 일회성 시즌 이벤트보다 주유 할인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마케팅 전략이 비용 효율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업 카드사 가운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곳은 우리카드와 KB국민카드 두 곳에 불과하다. 앞서 NH농협카드가 월드컵 경기 직관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종료됐다.

먼저, 우리카드는 내달 19일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 캐시백 이벤트'를, KB국민카드는 이달 26일까지 '준비! 어게인 2002 해외이용하고 응원키트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카드의 경우 이벤트 기간 국내외 결제 시 이용금액대별 캐시백을 지급한다. 특히, 북중미 지역에서 결제 시 꿀머니 리워드를 추가로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미화 환산금액 16달러(USD) 이상 결제하면 추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어느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첨을 통해 월드컵 응원키트를 제공한다. 카드사들의 월드컵 특수 이벤트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다. 한국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단어 사용에 대한 지식재산권(IP)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월드컵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 업계는 규제보다 수익성 악화가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맹점 수수료 감소로 업계 전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일회성 이벤트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일상생활 혜택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드컵 관련 광고도 많았고 혜택 이벤트가 많았다"며

"그러나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업계 수익성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 최소한의 일상적인 혜택만 남고 혜택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카드사들은 월드컵 관련 이벤트보다 주유 할인 혜택 연장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일부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고유가 대응 민생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지난 5월까지 확대 제공하기로 했던 주유비 할인 혜택을 내달까지 자체적으로 연장했다.

먼저, NH농협카드는 내달까지 올바른 오일&패스카드'와 '올바른오일카드' 개인 신용카드 고객 대상 '3차 주유비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리카드도 같은 기간 'SK 주유 400 우리카드' 이용 고객 대상 10만원 이상 이용 시 캐시백 5만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신한카드는 '딤오일' 및 'RPM+플래티넘'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주유 시 3% 추가 캐시백 할인 혜택을 연장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SK에너지 리브유 KB국민카드' 이용 고객에게 리터당 50원 추가 캐시백을 지급한다. 롯데카드는 '로카 포 오토'를 통해 4대 정유사 이용 고객에게 월 30만원 한도 내로 리터당 100원을 할인해 준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이번주, 전국 7개 단지서 3606가구 분양

## 분양 캘린더

일반 분양물량 3088가구

6월 셋째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088가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2단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서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1㎡ 총 743가구 규모다. 평택과 수도권으로(평택-화성),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을 통해 화성, 용인 등 수도권 인근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와 송탄, 철괴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2028년 10월 평택시청 신청사가 개청 예정이며, 단지 앞 업무 및 근린 생활시설과 초·중학교 부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모달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2BL에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50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 부전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이 2028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과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을 잇는 강서선 트램도 추진 중이다. 화전지구 일반산업단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등이 가까워 통근 여건이 좋다. 일부 세대의 경우 서낙동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 근린공원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예·적금 금리 올렸더니... 수신 거래자 증가

저축은행, 1분기 이용자수 989.9만명  
전분기비 1.6%, 전년비 7.7% 증가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수신 거래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요 저축은행이 주식 시장으로의 마니부르를 막기 위해 파킹통장, 고금리에·적금 상품을 출시한 것이 고객 유입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이용자 수는 98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 대비 15만4240명(1.6%), 전

년 동기 대비로는 70만7453명(7.7%) 증가했다. 여수신별로 살펴보면, 여신(대출) 거래자 수는 전분기 대비 9만9640명, 수신 거래자 수는 5만4600명 확대됐다.

특히, 수신 거래자 수의 증가세 전환이 눈에 띈다. 앞서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수신 거래자 수는 1376명 감소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수신 거래자 수가 23만4528명 급감했던 지난 2023년 말 이후 첫 감소세다. 증시 활황에 따른 마니부르(자금 이탈)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수신 거래 고객 증가 배경으로는 저축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며 자금 이탈 방어 전략에 나선 것이 일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35%다. 연초 2.92% 수준이었던 금리는 2월 중순 3%대를 넘어선 뒤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3.2%에서 연 3.3%로 올렸다. 금리 인상분은 웰컴저축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JT 저축은행 역시 대면 채널의 정기예금 금리를 연 3.51%로 인상했다. /안재선 기자

# NH농협생명,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

생명보험협회와 시청역 등서 진행

NH농협생명은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서울 시청역과 서대문역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원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양파 꾸러미 2000개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꾸러미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생명

출근길 캠페인에 이어 NH농협생명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양파



지난 12일 서울 시청역에서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왼쪽 첫번째)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 첫번째)이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꾸러미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생명

구매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으로 마련된 양파 30톤은 지역 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